

非常時 石油需給 管理對策과 展望

金 乾 洽

〈大韓石油協會·弘報室長〉

최 근 이란—이라크戰爭이 더욱 격화되면서 우리의 관심은 그 싸움의 승패보다는 中東 석유의 수송로가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느냐에 더 쏠리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中東석유의 수송로란 호르무즈 해협을 가리킨다. 이란이 이란—이라크戰의 항방에 따라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거듭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로선 호르무즈해협의 봉쇄가능성은 국제적 역학관계로 보아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 설혹 봉쇄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석유 파동은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 나라도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경우 약 100일은 견딜 수 있는 在庫를 보유하고 있어 호르무즈해협의 봉쇄가 단기간에 그칠 경우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石油輸入의 中東의존도가 68%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석유공급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나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2년에 KDI(韓國開發研究院)는 석유공급 부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즉 原油공급이 20% 줄어들면 GNP는 11.9% 떨어지고, 수출과 수입이 각각 12.9%, 24.1% 감소하며, 1백35만명의 새로운 실업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原油공급이 30% 감소하면 GNP는 20.7% 떨어지고, 수출과 수입이 각각 18.1%, 28.8% 감소하며, 2백35만명의 새로운 실업자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석유공급부족에 따른 국민경제의 위축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최근 動力資源部가 밝힌 「非常時 석유수급관리대책」은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관리하기 위한 기본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대책의 내용을 보면, 주요생활용 연료에 대해서는 배급제를 실시하고, 산업용油類에도 부분적인 통제를, 그리고 유류감축에 따른 전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업종의 전력사용중지등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같은 비상유류대책은 위기관리의 사전들을 정립함으로써 범국민적인 대응

테세를 확립하도록 하자는데에 그 뜻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은 수개월전부터 이라크가 프랑스에서 구입한 슈페르 에땅다르 전투기와 엑조세미사일을 이용하여 이란의 석유수출기지인 하르그島를 공격하면 이에 대한 보복으로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위협해 왔다.

만약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경우 자유세계 석유공급의 19%에 해당하는 8백80만B/D의 석유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란이 紅海로 연결되는 사우디의 파이프라인과 터키를 경유하여 地中海로 연결되는 이라크의 파이프라인까지 파괴하면 자유세계로의 석유공급이 1천80만B/D나 줄어들 것이며, 이와 같은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면 油價가 급등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와튼計量經濟研究所는 이 경우 석유가격이 6주 이내에 배럴당 1백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석유전문가들은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할 것이라는 이란의 경고는 그들의 주요석유수출기지인 하르그島를 이라크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세계여론을 유도하기 위한 위협에 불과할 뿐, 이란이 실제로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그것은 호르무즈해협의 봉쇄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는 석유수출의 대부분이 이 해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이란 자신이며, 또 美國을 비롯한 西方강대국들의 강력한 대응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완전히 봉

〈表-1〉 호르무즈해협봉쇄에 따른 自由世界の 石油供給減少

(單位: 百萬B/D)

	83. 4 / 4 產 油 量	國內消費 ¹	호르무즈해협봉쇄에 따른 供給減少	生 產 能 力	增產可能量
사 우 디	5.5	1.4	4.1	11.0	1.2 ²
이 란	2.5	0.6	1.9	3.0	0.0
이 라 크	1.1	1.1	0.0	1.5	0.0
쿠 웨 이 트	0.9	0.2	0.7	2.5	0.0
U A E	1.2	0.1	1.1	2.9	0.0
카 타 르	0.3	0.0	0.3	0.7	0.0
中 立 地 帶	0.6	0.0	0.6	0.6	0.0
에 과 도 르	0.2	—	0.0	0.3	0.1
베 네 수 엘 라	1.7	—	0.0	2.5	0.8
인 도 네 시 아	1.4	—	0.0	1.6	0.2
알 제 리	0.7	—	0.0	1.1	0.4
가 봉	0.2	—	0.0	0.2	0.0
리 비 아	1.1	—	0.0	2.0	0.9
나 이 지 리 아	1.3	—	0.0	2.4	1.1
非 O P E C	26.4	42.0	0.0	—	0.5
합 계	46.3	45.3	8.8	—	5.2
增 產 可 能 量			5.2		
天然가스供給減少			0.6		
實際供給減少			4.2		

〈資料〉 IEA, *Oil Market Report*, Feb. 1984.

PIW,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Jan. 16, 1984.

Petroleum Information Corporation, *Petroleum Information International* Jan. 30, 1984.

註: 1) 사우디와 이라크의 國內消費에는 紅海 및 地中海로 연결된 送油管을 통한 石油輸出도 포함.

2) 紅海로 연결된 送油管의 最大送油能力은 185만 B/D이나 현재는 60만 B/D만이 이 送油管을 통해 輸出되고 있음.

세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사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된다고 해도 그 영향은 지난 두차례의 石油危機때처럼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앞으로 5~6개월은 석유소비가 줄어드는 계절이라는 점도 호르무즈해협의 봉쇄로 야기될 석유공급부족을 줄이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IEA(國際에너지機構)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自由世界 전체의 석유소비가 1/4분기의 4천6백70만B/D에서 2/4분기에는 4천4백만B/D, 3/4분기에는 4천3백80만B/D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경우, 自由世界の 석유공급부족은 모든 산유국들이 지난 해 4/4분기의 생산수준을 유지하면 1/4분기의 9백80만B/D에서 2/4~3/4분기에는 7백만B/D로, 그리고 증산이 가능한 모든 산유국들이 생산시설을 최대한 가동하면 1/4분기의 4백60만B/D에서 2/4~3/4분기중에는 1백80만B/D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경우, 심리적인 불안에 따른 假需要의 급증으로 석유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79년의 제2차 石油危機때 5백만B/D의 가수요가 나타나 油價를 급등시킨 주요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행히 우리 나라는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어도 1백일을 견딜 수 있는 석유를 보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석유전문가들의 전망처럼, 호르무즈해협의 봉쇄가 단기간에 그치면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석유輸入의 中東의존도가 68%에 달하고 있어 안정적인 석유공급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해협

(表-2)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경우의 分期別 自由世界の 石油供給不足

(單位: 百萬B/D)

	84				
	1 / 4	2 / 4	3 / 4	4 / 4	年平均
石油需要(A)	46.7	44.0	43.8	45.6	45.1
83년 4/4分期生産水準유지할 경우의 產油量(B)	36.9	36.9	36.9	36.9	36.9
生産施設을 최대한 가동한 產油量(C)	42.1	42.1	42.1	42.1	42.1
石油供給不足(A-B)	9.8	7.1	6.9	8.7	8.2
石油供給不足(A-C)	4.6	1.9	1.7	3.5	3.0

(資料) (表-1)과 同一.

의 봉쇄가 장기화되면 큰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경우 우리 나라가 취해야 할 대응책으로는 먼저 增産이 가능한 산유국들로부터 필요한 量을 가능한 한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하기 위한 對產油國의 외교의 강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경우 무엇보다도 先行되어야 할 조치는 불요불급한 석유의 소비를 줄이는 일일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석유재고수준하에서 석유소비를 10% 줄이면 호르무즈해협의 봉쇄에 따른 석유공급감소분을 전혀 보충하지 못할 경우에는 20일을, 上記한 석유공급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 석유공급감소분의 50%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95일을 더 견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석유소비감축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非常油類대책이 석유소비감축에 초점을 맞추어 짜여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

企業人은 좋은 製品, 소비자는 바른 消費